

신혼부부 1쌍당 1명도 안 낳아...소득 높을수록 '無자녀' 비중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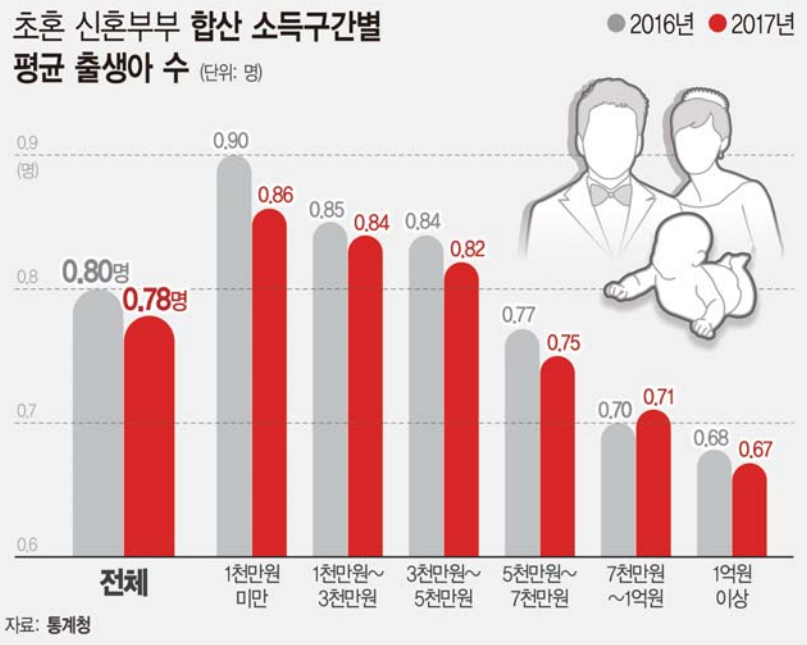
통계청, '2017년 신혼부부 통계 발표'

신혼부부 37.5%가 자녀 없어...평균 출생아 수 0.78명
소득 높을수록 출산에 소극적...맞벌이일때 두드러져
“전문직·고임금 종사자, 출산 기회비용 비교적 커”
맞벌이 부부, 가정 양육보다 어린이집 맡기는 경우 다

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의 비중이 전체의 40%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. 부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지 않은 비중은 높았고 평균 출생아 수는 1명에 미치지 못했다.

통계청이 11일 발표한 '2017년 신혼부부 통계'를 보면 초혼 신혼부부 110만3000쌍 중 지난해 11월1일 기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4000쌍으로 전체의 37.5%를 차지했다.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1년 전(36.3%)에 비해 1.2%p 늘어났다. 1~2년차 부부를 제외하고 3~5년차 부부만 따질 경우 미출산 비중은 21.8%로 낮아진다.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자녀가 없는 부부가 더 많다는 얘기다.

초혼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.78명이다. 신혼부부당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이며, 1년 전(0.80명)보다도 줄어든 것이다. 평균 출생아 수는 2년차 부부가 0.53명으로 가장 작았으며 3년차(0.80명) 부부도 1명이 채 안 됐다. 4년차와 5년차는 각각 1.03명, 1.24명으로 1명을 간신히 넘겼다.



부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비중은 작았다. '무(無)자녀' 비율은 신혼부부의 소득 구간이 1억원 이상일 때 44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밖에 7000만~1억원 미민에서 42.9%, 5000만~7000만원 미민에서 40.1%, 3000만~5000만원 미민에서 34.4%, 1000만~3000만원 미민에서 33.6%, 1000만원 미민에서 33.1%로 각각 집계됐다.



많은 것으로도 해석된다.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 중 자녀를 둔 비율은 56.3%로 그 반대의 경우(68.9%)보다 낮았다.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율을 봐도 전체의 56.7%로 외벌이 부부(68.0%)보다 낮았다. 평균 출생아 수도 맞벌이 부부가 0.70명, 외벌이 부부가 0.86명으로 집계됐다.

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"소득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맞벌이 부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"며 "아이를 낳으려면 부부 둘 중 한 명이 희생해야 하는데 여성들이 출산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"고 했다.

이어 "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문직이나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생겼을 때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진다"고 부연했다. 평균 출생아 수 역시 아내가 경

제활동을 할 경우 0.69명, 하지 않을 경우 0.88명으로 나타났다.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외벌이 부부보다 낮았으며 역시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.

주택을 소유한 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한 비중이 높았다.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비율은 67.0%였고 무주택 부부의 경우는 59.0%로 낮았다.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.85명으로 무주택 부부(0.73명)보다 높았다.

초혼 신혼부부의 자녀 중 만 5세 이하 영·유아는 총 85만7450명이다. 지난해 10월 기준 보유 형태를 보면 가정 양육이 47.7%(40만9000명)로 가장 높았다. 다만 1년 전보다는 3.1%p 감소했다. 어린이집(46.0%)에 맡기는 비율도 가정 양육에 준하는 만큼 컸다. 특히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어린이집

보육 비중이 9.7%p 높았다. 아내의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 초혼 부부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78.3%에 달했다. 19세 이하(65.7%) 연령대에서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.

유(有)자녀 비중은 30대에서 66.8%로 가장 높았고 20대(54.4%), 40대(48.7%) 등이 그 뒤를 이었다. 평균 출생아 수도 30대에서 0.8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(0.67명), 40대(0.59명), 50세 이상(0.38명), 19세 이하(0.37명) 순이었다.

혼인 후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낳는 경향이 나타났다. 임신과 출산 기간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비중은 혼인 1년차 중 32.2%에 불과했던 반면 2년차 부부에서 59.4%, 3년차 부부에선 71.5%로 늘어났다. 평균 출생아 수가 봐도 1년차엔 0.23명이었던 것이 2년차엔 0.57명, 3년차엔 0.80명으로 늘어났다.

집 있는 신혼부부 88%, 은행에 '빚'...8만쌍은 2채 이상 보유

남편 단독 명의 집 58.7%...아내 명의(8.8%) 3배 넘어

지난해 주택을 보유한 초혼 신혼부부의 약 88%가 금융 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전체 신혼부부 110만여쌍의 7.2%에 해당하는 8만쌍은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.

통계청이 11일 발표한 '2017년 신혼부부 통계'를 보면 초혼 신혼부부 110만3000쌍 중 지난해 11월1일 기준 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43.6%(48만1549쌍)로 1년 전보다 0.5%p 늘었다. 이 중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

부부는 8만쌍으로 비중은 1년 전보다 0.2%p 증가한 7.2%였다.

주택 소유 비중은 혼인 연차가 오래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. 초혼 신혼부부 중 1년차 부부들의 경우 33.0%가 주택을 소유했지만, 2년차에선 39.0%, 3년차에선 44.2%, 5년차에선 절반을 넘는 52.4%로 늘어났다. 구체적으로 2014년에 주택이 없던 초혼 신혼부부 17만1000쌍 중 24.2%(5만4000쌍)가 혼인 후 3년이 지난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변화했다.

주택 자산의 가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5000만원 초과~3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이 38.3%, 6000만원 초과~1억5000만원 이하가 35.9%, 6000만원~3억원 구간의 비중이 전체의 74.2%를 차지한다. 이밖에 3억원 초과~6억원 이하가 13.7%, 6000만원 이하가 8.6%, 6억원 초과가 3.4%로 각각 나타났다.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에 위치한 신혼부부 비중은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늘었다.

초혼인 신혼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총 60만3000호다. 이 중 남편 단독 명의로 된 곳이 58.7%로 아내 단독 명의(18.8%)인 경우의 3

배를 넘었다.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비중은 13.3%(8만호)에 그쳤다. 다만 공동 명의 비율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해왔으며 혼인 연차가 오래될수록 높게 나타났다.

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87.7%가 제3금융권을 제외한 금융권으로 부터 가계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'무(無)주택' 부부도 79.8%가 빚을 진 상태였다. 유(有)주택 부부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59.4%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. 유주택 부부의 부부당 대출잔액 증감률은 1억 2049만원으로 무주택 부부(6000만

원)의 약 2배였다.

대출 잔액을 구간별로 보면 1억~2억원 미만인 경우가 28.5%로 가장 많았다. 다만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증감률은 8784만원으로 잔액이 1억원에 못 미치는 부부의 수가 더 많았다. 맞벌이 부부의 대출 잔액 증감률이 1억9000원으로 외벌이 부부(8000만원)의 1.3배였으며, 혼인 연차가 오래될수록 증감률은 더욱 높아졌다. 5년차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증감률은 9690만원이었다.

아파트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가 전체의 66.1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 혼인 연차가 오래될수록 아파트 거주 비중은 높아져 5년차 부부의 경우 71.6%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반면 단독주택에 사는 비중은 2015년

18.5%에서 2016년 17.6%, 2017년 16.6%로 꾸준히 감소했다.

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였다. 전체의 27.0%인 37만3000쌍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. 서울에는 26만3000쌍(19.1%)이 거주해 두번째로 비율이 높았다. 서울과 인천, 경기도를 합한 수도권에만 신혼부부의 52.1%가 거주하고 있었다.

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세종(11.5%)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. 제주(0.4%)에서도 소폭 증가했다. 이외 모든 시·도에서 줄었다. 특히 울산(-5.7%), 대전(-5.6%), 서울(-5.4%), 부산(-5.4%), 전북(-5.4%)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. 초혼 부부의 경우 세종(85.9%)에 가장 많이 동지를 틀었고, 재혼 부부는 전남(27.0%)에 사는 비율이 높았다.

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

가짜뉴스

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

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
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
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.

한국언론진흥재단
Korea Press Foundation